

# 건축문화 **사랑**

Vol.006 10. MAY 2010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0.05

006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 건축과 조경

건축과 조경의 통시를 찾아라-레인가든(Rain Garden)\_조동범

## 인터뷰

미래를 여는 100주년 송기향

## 대학소개

홍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 NEWS

광주건축사회 '회원 및 조합원 워크숍'

## 시론

건축사들의 비전은 어디에? \_장기홍

영문과 감정으로 맺어내는 공간장소의 매력\_김옥조

## 진단

광주, 전남·북의 건축사회는 옹화집단의 공동체\_이창홍

## 저널 거침

21세기의 새로운 건축의 가능성\_김지민

## 건축과 도시

새로운 도시민들기와 광주\_이영규

## 건축사들의 비전은 어디에?



**장기중** 건축사  
 지산 건축사사무소 대표  
 前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前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2010년 4월의 변화무쌍한 날  
 씨에 건축사들은 요즘 어떻게 사  
 무실을 운영하며 살아가는지 정  
 말 궁금하다. 우리 건축사들은  
 대한민국 건축문화에 지대한 공  
 헌과 국가발전에 비중이 큰 책임

을 지고 오늘에 이르렀으나, 고소득 전문직으로 내몰려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현실 지킴이로 서있다. 급기야는 정부가 건축사 보호정책에서 손을 떼고, 규제 일변도와 시장경제로 내몰아 전문가격의 테두리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민간 건축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주거용건물이 많이 건설되어 전남·북 지역 주택 보급률이 벌써 120%대를 돌파 했다. 따라서 국내 건설시장은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하는 시장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화된 어느 유럽의 사회뉴스를 지면을 통해 접한 적이 있다. 신발 디자이너들이 건축사들이 업역을 침해하여 구두디자이너까지 한다고 데모를 한 것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유럽의 건축사들은 건물 디자인 뿐만 아니라 각종 구조물, 가구, 생필품 등의 디자인까지 경계를 허무는 정서가 점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또 일본에서는 건축 시공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건축사들이 해내고 건축물 유지관리와 부동산 등기업무까지 다양한 업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미 CAD 작업에서 BIM 정보적용 환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정책도 건축디자인 품질향상을 통한 도시 경쟁력 향상과 녹색 성장 산업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문화 가치관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감성사회로 신산업 동력은 녹색 성장 패러다임으로 진행되고, IT기술이 접목된 융합 복합화로 신기술 업무용 빌딩, 에너지 자립형 건축, 하이브리드형 전원후 건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의 프로세스도 글로벌 표준화, 결과에 대한 책임 및 공공성이 강화 될 것이다.

이제까지는 어려움이 평면적이었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입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해결방안으로 복합적이고 협력적으로 함께 풀어나가는 조직의 힘이 요구되는 때다. 건축사들이 힘을 모아 업역 확대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 공동체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하던 폭 넓은 수양과 높은 수준의 전문 능력, 건전한 직업윤리가 발휘되고, 사회가 지향하는 목적과 일치될 때 우리의 위상과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과제가 완성 될 것이다. 벌써 APEC 등록건축사와 국내건축사가 구분이 되고 있다. 물론 양국화현상이 자명한 시대정서에 독자적인 능력을 사회에서 인정하고 신뢰하여 독창적인 활로를 모색하는 건축사는 예외 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로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스터디 그룹 활동과 회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부문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지난 2010년 4월 24일 인터넷 뉴스에서 연예인 김제동씨가 미국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 로스쿨 오스틴 홀에서 복도까지 빼곡이 들어찬 500여 청중을 위한 특강을 하였다. 내용 중 "나는 좋아하지 않는 정부를 가진 적은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조국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웃기고 싶을 뿐입니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여기에 대입해 보았다. "나는 좋아하지 않는 협회를 가진 적은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건축사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건축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

## 영혼과 감성으로 빛어내는 공간창조의 매력



**김옥조** 기자  
 광남일보 정치부장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릇의 생김새보다 그 그릇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를 중히 여긴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요즘 어느 분야에서나 흔하게 접하는 말이 '콘텐츠'이다. 대화를 하거나 논리적 토론을 할 때 '형식이나, 내용이나'로

논란이 이어지면 대부분이 내용에 무게중심을 두곤 한다. 대개 결론도 그 쪽으로 난다. 반론도 거의 없다.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하면 더 이상 논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심지어 형식은 내용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까지 여겨지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우리 사회는 '내용'을 매우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겉질 없는 알맹이가 어디 있겠는가. 틀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용을 어떻게 채우겠는가. '물길을 만들어야 물이 흐른다'는 말도 있다. 우리 일상에서만 봐도 '폼생폼사'는 또 어떤가. 일단 가시적 형상과 틀 거리가 갖춰지지 않고서는 사물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의 정체성과 질, 가치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사람들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가정과 학교, 직장, 사회의 일원으로서 관행과 관습, 교육을 통해 삶의 방식을 터득한다. 그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지나치게 정신에 치중한 나머지 자신의 육체에 대한 이해수준이 형편없다는 것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건장한 몸을 가진 사람보다 우대받는 풍토 속에서 몸의 기능과 잠재력에 대한 가치 개발보다는 정신과 두뇌를 써서 행하는 모든 것에 더 높은 점수를 두었다. 몸은 곧 정신과 두뇌를 담아 유지하는 틀, 즉 형식으로 치부되곤 했다.

이런 내용이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논리는 비약하자면 외양의 생김과 색깔에 따라 인간을 차등화·차별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백인 중심의 서구 유럽이 우색인과 아시아·아프리카 등을 미개하고 비문명적 존재로 깎아 내리는 데에도 이러한 논리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고 말한다. 감성이 뭔까. 몸으로 느끼는 것 아닌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바로 오감의 전율인 것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을 우월시하여 이성이나 지성을 강조하던 시대가 가고 재능과 끼를 중요시하는 흐름이 갈수록 대세를 이루고 있다. 승승 전국 수석도, 명문 일류대 1등 졸업도 지금은 그리 주목을 끌지 못한다. 차라리 자신의 몸에 깃든 재능과 기량을 맘껏 발산하는 스포츠·연예·예술 등의 인재와 스타가 10대 때부터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이들은 상품 마케팅과 사회적 이슈, 홍보, 국가 경쟁력에 이르기까지 권력과 다름없는 영향력을 가질 정도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굳이 형식과 내용을 따로 떼서 생각하고 말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는 주장에도 일견 설득력이 있음을 이해해야하지 않을까.

건축은 공간을 지배하고 독자적인 틀을 창조한다. 형식의 범주에 있으나 그 안팎에 깔리고 숨어드는 모든 에너지는 또한 정신, 즉 내용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간 구조이다. 건축은 그래서 매우 객관적 실체이면서 영혼과 감성이 공존하는 인간의 피조물이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핵심인 '아시아문화전당'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0년 5월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일에 완공 돼야했다. 금세기 최고의 창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이 건축물이 형식과 내용의 조화·공존 모색보다는 랜드마크니, 도청별관 철거니 하는 정치적 논란으로 세월만 날려버렸다.

선형적 사례가 없는 전혀 새로운 미래 영역과 코드를 만들어 가는 창조적 건축 사업에 과거의 낡은 정치적 논리와 현재적 시각만으로 발목을 잡았던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갯바위에 양관광지







### (주)이에스엔지니어링

건축, 토목(전남 15-0277호)  
 주택건설(전남주택 2005-0027호)



### (주)이에스산업개발

조경식재(광주동구 2008-16-04호)  
 시설물유지업(광주광산 2010-29-03호)

**대표이사/건축사 김 정 일**

광주광역시 광안구 선암동 54-7 E.S B/D  
 TEL: 062-236-2744 FAX: 062-236-2844

# 광주, 전남·북의 건축사회는 융합집단의 공동체



이창울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주)GA건축사사무소 대표

로펌 (Law Firm)처럼 약 50명 단위의 건축사들이 「건축법인」으로 모여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다면...  
우리들의 삶 그 자체가 매우 부요(富饒)롭게 될 것이다.

우리는 광주, 전남·북다움의 건축문화를 견양하는 조형창작예술인의 한 축이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전문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실존철학자 사르트르(J.P. Sartre)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수열집단(數列集團)"과 "융합집단(融合集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바 있다. 수열집단은 상호관계의 목적이 없는 정류장 같은 공공의 장소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 어쩌다보니 한 장소에 모였을 뿐 아무런 내적관계가 없는 우연적 집단을 의미하고 융합집단은 그 구성원들이 내면적으로 서로의 관계가 엮히고 이어져 하나의 의식적 관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어느 사회나 이러한 두 가지 속성의 집단이 존재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융합집단의 성격을 가졌던 관계들이 수열집단의 관계로 급속하게 변모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광주, 전남·북 건축사회도 이러한 맥락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건축설계·감리의 업무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이들을 만나기 어렵다. 지역의 우리 건축사들은 우연히 한 구성원으로 살고 있을 뿐 아무런 내적관계의 생활양식을 공유한 것들이 없다.

건축사법이란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업무의 보장 속에서 자격을 취득

하고 상호관계의 업무를 같은 도시 속에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처리권(治權)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공동체적 결속감을 가졌던 조직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저 생태적 생활양식에 따라 상호단절과 개체화의 양상이 뚜렷해진 이웃주민일 뿐이다. 서로 깊이 알고 지내지 않아도 심적 부담은 물론 아무런 행동의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우리 건축사들은 새로운 도시환경과 건축문화의 창조를 위하여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아름다움의 건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며 연구와 재교육으로 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세대까지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기의 훌륭한 건축물은 훌륭한 건축주나 행정가보다 훌륭한 건축사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경제전망개도와 건설경기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장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실천계획의 이행결과를 매년총회에 보고하고 회원에게 공포하고 있다. 2010년도 비전(Vision)은 회원을 위한 협회, 회원에 의한 협회, 회원이 주인인 협회의 목표와 생존권 확보, 건축사의 품위향상, 자랑스러운 건축사·존경받는 건축사란 추진전략을 뜻대로 삼고 있다. 광주, 전남·북 우리 민생건축사들의 현실성 있는 실천과제로는 건축사사무소의 운영실태조사·분석·규모 및 업무량을 파악, 업무의 확대를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건축사사무소의 육성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형건설사들이 20명 이상의 건축사들을 고용하여, 공동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대형건축물과 터키공사에 한해서 설계업을 허용하였다. 우리들도 건축사 20명 이상의 규모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 제도의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현장조사대행업무의 현실화, 신고업무의 확대, 설계감리(디자인감리)업무의 제도화, 건축물철거시 건축사감리, 부동산 매매시 건축물실태조사확인제도,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공사 발주시 건축사 확인, 건축물관리제도의 건축사업으로 정착 등, 어려운 경영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들을 개발할 수 있음을 제안해 본다.

앞으로는 건축사등록원에 등록된 건축사만이 설계·감리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융합집단으로서 생존을 위한 기술을 공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업무에 깊이 개입할 수도 없었다. 모두가 무심했고 독립적인 타자(他者)일뿐, "나-너"의 관계로 소통이 없었고 "나-그것"의 관계로만 얽혀져 있는 존재들이었다. 광주, 전남·북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동일한 정체성과 유사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로펌(Law Firm)처럼 약 50명 단위의 건축사들이 「건축법인」으로 모여 경쟁력을 갖춘다면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설계관련업무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업무, PQ, BTL, CM, 턴키(TurnKey), 현상설계경기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어 업무량이 그 안에 넘칠 것이며 우리들의 삶 그 자체가 매우 부요(富饒)롭게 될 것이다.

## 이 시점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을 거듭하는 우리들의 매너리즘(Mannerism)이다.

창작성과 예술성의 작가적 철학은 그 건축물의 생명이다. 세계경제가 어렵고 국내 건설경기가 더디게 회복되어도 생존을 위한 틈새는 얼마든지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을 거듭하는 우리들의 매너리즘(Mannerism)이다.

‘공정이 힘’이라 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일들만,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일들만 만들어 낸다. 건축사보수대가의 정착뿐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는 많은 시너지(Synergy)효과들이 우리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하자.

광주, 전남·북의 모든 회원들은 한 가족이며 더 이상 업무수주의 경쟁대상이 아니다. 생존을 위한 융합집단의 공동체를 만들자. 지금부터라도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규모를 갖추어 경쟁력을 확보하자. 대형건축물도 터키발주공사도 우리 건축사들만이 수행 할 수 있는 업역이며, 자랑거리이면서 무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형창작예술인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야 하는 창조자로 부름을 받았다. 우선순위로 이 부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면 국가와 사회, 국민들이 공익을 구현하는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해줄 것이다.

지금도 우리 광주, 전남·북 건축사들은 아름다움을 조형창작하는 미술가요, 예술가들이며 아무런 내적 유대가 없는 우연적 수열집단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엮히고 이어진 의식적공동체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관계적 융합집단으로 매우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 황토의 모든 것 남강황토세라믹이 드립니다.

생산품목 : 황토벽돌, 황토바닥재, 황토미장재, 황토타일, 황토편인트, 황토 주택 건설

대표 김남준



남강황토세라믹  
NK Ceramic

본사 : 전남 화순군 한천면 반곡리 677-7  
TEL : (061)374-9100  
FAX : (061)374-7154  
홈페이지 : www.nkhwangto.com

# 21세기 새로운 한옥의 가능성

김지민 교수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1. 머리말
2. 우리의 옛 한옥
3. 한옥의 운영과 새로운 정착 가능성 (2010년 4월호에 기재)
4. 한옥의 메카로 자리잡은 전라남도
5. 맺음말

## 4. 한옥의 메카로 자리잡은 전라남도

### 1) 정착배경

한옥이 사라진지는 시기적으로 얼마되지 않는다. 개략 1970년대부터 농·어촌의 살림집이 외형적으로 크게 변했고(지붕개량 등) 새로 짓는 주택은 벽돌조 내지는 콘크리트조가 주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한옥은 우리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 있었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민속촌에서나 접할 수 있는 그런 건축으로 생각했다. 그랬던 한옥이 하나둘씩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 중심이 바로 전라남도였다. 이는 불과 3~4년전이었으나 이제는 전남이 한옥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까지 구축되어 있다. 이렇듯 전남이 한옥의 메카로 전국적인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이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첫째, 한옥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남도민의 정서와 예술적 감성이 있다. 즉 고대부터 영산강 주변의 넓은 농경지에 삶의 뿌리를 둔 남도민은 자연과 전통을 중시했고 그러한 사고는 자연과 어울리는 친환경 개념의 한옥을 수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둘째, 전라남도의 정책적 배려가 있다. 즉, 전라남도에서는 2004년 6월 한옥보급의 기본구상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본격적인 한옥개발 및 보급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사업내용은 행복마을 지정 및 관리부터 한옥보급 교육, 학술세미나, 서적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한옥 신축시 개별적으로 건축자금을 지원해 주는 자금지원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모든 사업은 5장 29조로 된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에 의해 시행된다. 또한 한옥관련 전문기관 구성된 '전라남도 한옥위원회'를 두어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 〈한옥신축 지원금〉

공사내용	행복마을 내	기타 전지역
한옥신축(86㎡이상)	2천만원 보조금 지원 3천만원 융자금 지원	3천만원 융자금 지원

※ 공종 : 총공사비의 1/2범위 내에서(금액은 최대금액임)  
 ※ 융자조건 : 연 2%대,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은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시·군에서는 별도의 조례에 의해 추가 지원금(보통 2,000만원)

셋째, 도시민이 아닌 농촌에 거주하는 실제 주민의 살림집으로 출발했다. 그들은 자기가 살던 집터, 또는 자기 소유의 대지에 집을 지으므로 우선 대지구입 비용이 들지 않았다. 또한 고급 한옥이 아닌 농가주택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건축비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지원금이 있어 실질적으로 일반 벽돌조 주택 건립비용과 거의 같음).

넷째, 살림집 이외의 다양한 공공성 건물을 한옥으로 건립했다. 즉, 2007년 도시사공관을 시작으로 해서 전라남도 산림박물관, 비즈니스센터, 관광정보센터 등

이 이미 완공됐고, 또한 영암 나불도에 한옥속박단지(호텔)와 쌀 테마박물관이 곧 건립될 예정이다. 이렇듯 한옥이 앞으로 살림집이외의 다양한 용도로 쓰여 질때 그만큼 공공성이 확보되고 아울러 한옥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질 것이다.



해남군 매정마을 한옥펜션



전라남도 비즈니스센터 '수라재'



전라남도 산림 박물관



강진군 굴동마을 마을화관



영암 쌀 테마박물관



영암 한옥속박단지

### 2) 생활한옥의 건축적 특성

#### 가. 건축개요

최근에 전남지역에 건립된 생활한옥의 건축주는 대부분이 농촌에 생활근거를 둔 일반 서민이다. 즉, 한옥의 개념을 과거 농촌에 흔히 있었던 정면 4칸 정도의 초가의 연속선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소득과 환경은 크게 변했지만 실질적인 삶의 구조는 크게 변

한 것이 없다. 벗집지붕에서 기와를 올렸다고 과거 사대부집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조선시대 전통한옥(서민)



현재의 농촌 한옥. 건축비가 3.3㎡당 450~500만원 정도

한편 최근에 짓는 농촌 한옥을 보면 부속채도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우선 농업생산구조가 크게 변했고 가족수도 오히려 도시 가정보다 적고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가족수나 경제력에 따라 다양한규모, 처장 등) 한옥을 지을 수도 있다



조선시대 전통한옥(상류층)



최근에 지은 고급 한옥. 건축비가 3.3㎡당 800~1200만원 정도

건물형태는 전체적으로 'ㅡ'자형이 다수를 차지한다. 'ㅡ'자형은 민가나 반가 할 것 없이 조선 후기 남도지방의 대표적인 평면형이다. 현재의 한옥이 그러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ㅡ'자형은 다른 형('ㄷ', 'ㄱ'자 등) 보다 건축비가 다소 덜 들고 집이 개방적이며 밝게 보인다. 'ㄱ'자형 한옥도 최근에 들어 그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기타 'ㅂ'자형과 2층 한옥은 한두 채 정도만 보인다.



지방채를 잘 실려 좌측은 1층, 우측은 2층으로 지은 'ㅂ'자형 한옥(무안 약실마을)



무안 북룡촌 마을 2층 한옥 2층은 민박용으로 사용할 계획

다음 표는 전통한옥과 최근에 지은 전남 생활한옥의 건축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전통 및 현대한옥 건축개요

항목	전통한옥	현대한옥	비고
규모	칸수 정면 3~4칸 면적 50~70㎡	정면 4~5칸 90~110㎡	
형태	'-' 자형	'-' 자형, 'ㄱ' 자형	
구성	부엌, 안방, 마루가 황으로 균등배치	거실중심	아파트 형식
평면	출입 각실로 직접 마루 (땃마루, 대청동)	현관설치	
재료	벽돌	기와	시멘트 기와가 많이 쓰임
지붕	형태 우진각	팔작	
벽체	삼벽	벽돌사용	황토블럭, 작벽돌, 시멘트블럭, 단열재
목재	육송	수입목	다그라스 피
창호	구조 단창, 여닫이 문양 띠살	이중창, 미닫이	외 플라스틱 내 목재 문양이 극히 제한적
난방	온돌	온수파이프	기름보일러
천장	마루(대청)만 연등천장	거실만 연등천장	

나. 평면구조

건축도면중 평면도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면이다. 그렇지만 그 가치는 어떤 도면보다 높고 절대적이다. 특히 외형이 거의 비슷한 한옥에서는 평면이 갖는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 과거에 목수들은 기둥의 위치와 간살이 치수정도만 표기된 間架圖만으로도 한옥을 짓기도 했지만 요즘은 현대 건축 못지않게 많은 상세도면이 요구된다.

최근에 무안, 영암, 해남, 장흥의 5개 마을에 건립된 총 42채의 한옥 평면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 자형이 30채, 'ㄱ' 자형이 12채였다. 칸수는 정면 3칸부터 5칸까지 보이며 측면은 보통 2칸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정면 4~5칸 한옥이 많고 3칸형은 규모로 인해 5채 정도에 불과하다 유형별 평면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자형 평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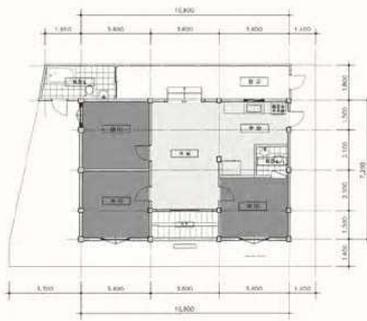
평면유형	건축면적 (평균)	특징
3칸형 (5채)	82.4㎡	- 규모가 작아도 방 3개를 거의 돌 - 거실이 상대적으로 좁아 흠과 같은 느낌 - 휴면으로 본체에 덧대어 부속공간 (대청도실, 화장실 등) 설치
4칸형 (14채)	89.5㎡	- 3칸형에 거실이 1칸 더 늘어나 중앙이 넓어 보이고 상부에 대들보가 드러남 - 방의 크기와 수는 3칸형과 거의 같음 - 후면의 부속공간 설치는 3칸형과 같음
5칸형 (11채)	95.3㎡	- 거실이 상당히 넓어지고 (정면3칸) 대들보가 2개나 보임 - 집의 규모가 커졌지만 땃마루 설치는 거의 없음 - 현관이 거실 전면 한쪽에 위치 (4칸형도 같음)

\* 건축면적은 본체에 덧댄채(미닫이 등) 부속공간을 제외한 순수한 건축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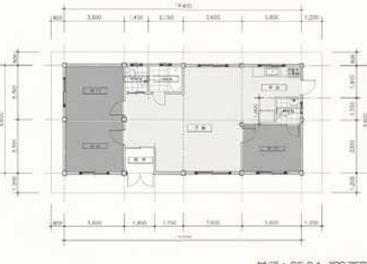
5칸형 한옥(해남)

거실



본채 : 77.76㎡(23.52평)  
부속 : 22.77㎡(6.88평)

3칸형 사례 평면도(무안군 북룡촌)



본채 : 95.04㎡(28.75평)

4칸형 사례 평면도(장흥군 우산마을)

'ㄱ' 자형 평면유형

평면유형	건축면적 (평균)	특징
3칸형 (1채)	85.1㎡	- 유일하게 1채만 보이는 유형 - 거실과 부엌이 서로 열려 있어 실내가 비교적 넓어 보임
4칸형 (4채)	90.4㎡	- 중앙에 거실이 정면 2칸 규모로 자리함 - 꺾어진 날개부분에 칸방이 배치되고 그 위쪽에 거실과 연결된 부엌이 위치
5칸형 (7채)	99.0㎡	- 실 위치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남 - 중앙에 거실이 정면 2~3칸 규모로 자리함 - 꺾어진 날개부분이 2칸으로 구현된 곳도 있음 - 날개부분에 대부분 칸방이 위치하고 그 끝에 3면이 개방된 누마루를 설치한 한옥도 있음

\* 건축면적은 본체에 덧댄채(미닫이 등) 부속공간을 제외한 순수한 건축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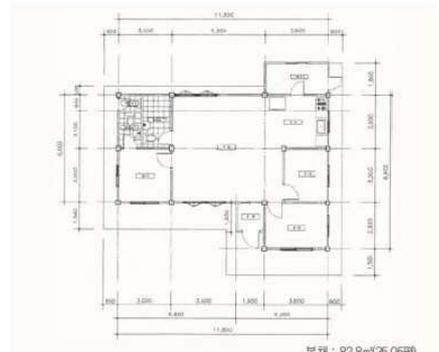
누마루형 한옥

기둥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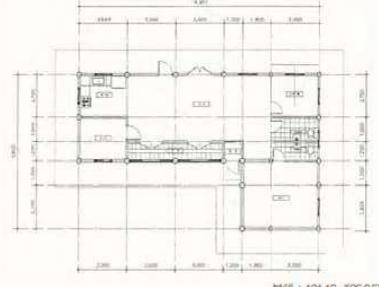
5칸형

4칸형



본채 : 82.8㎡(25.05평)  
부속 : 6.48㎡(1.96평)

'ㄱ' 자형 사례 I 평면도(무안 약실마을)



본채 : 101.16㎡(30.55평)

'ㄱ' 자형 사례 II 평면도(영암 구림마을)

5. 맺음말

살림집으로서 전남한옥은 단순한 건축행위 이상으로서 의미가 있다. 즉 과거 우리의 옛집을 재현하는데 머물지 않고 새로운 마을의 주거사를 개척하고 있다. 10~20대가 집단화 하여 마을의 경관을 새롭게 바꾸고 있고 삶의 자체도 한옥의 친환경 개념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벽돌조 슬래브 주택과 슬레이트 지붕이 농촌주거의 대명사였던 현실을 감안하면 한옥 마을이 주는 의미는 자못 남다르다.

농촌 생활한옥의 주체는 바로 실거주자인 농민 등 지방 거주자다. 즉 한옥을 보는 눈높이(시각) 역시 그들이다. TV사극에서 나오는 사대부가의 격조 높은 공간과 세련된 마감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건축비 문제)

최근 지어진 한옥을 보면 건물구성도 안채뿐이다. 과거 농촌 민가에 꼭 있었던 부속채도 없고 땃마루도 거의 없다. 농업구조와 함께 농촌생활의 패턴이 바뀐 것이다. 즉 한옥이 도시형 주택구조화 되고 있고 그게 바로 현실이다. 가끔 필자가 도시민에게 한옥을 안내하다보면 넓은 마당도 없고 대청마루도 없고, 정겨운 휴당장도 없다고 다소 실망스런 눈빛을 보낸다. 필자는 민속촌에나 가라고 한다. 그렇지만 내심 필자도 그런 모습이 사라져 가는게 아쉽고 가끔 설계가 들어오면 그런 쪽으로 건축주를 유도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옥에 있어 평면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전통 목구조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편의성을 최대로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청도실, 수납장, 현관, 보일러실 등 다양한 서비스공간이 필요한데 기둥의 위치 및 간격에 한계가 있고 많은 간막이벽 설치도 고민이 된다.

전남의 생활한옥 설계는 대부분 지역 소재(군 단위) 건축사사무소에서 맡고 있다. 이들의 책임이 무척 크다. 한 시대, 농촌한옥의 신 개척자가 되기 때문이다. 목조가구의 특성을 세심히 살펴 필요이상의 목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화장실과 주방 등 적정 스페이스 프로그램 산출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 거실 계획시 휴 개념이 아닌 아늑한 한옥의 분위기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 3.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세 번째 이야기

이명규 교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 새로운 도시 만들기와 광주 - 첫번째 이야기 (2010년 3월호에 기재)
2. 새로운 도시 만들기와 광주 - 두번째 이야기 (2010년 4월호에 기재)

#### 시가지계획에서 도시계획으로... 이름은 변했지만 내용은 그대로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들이 그러하듯 광주시도 일제 시대에 작성된 시가지계획을 그대로 답습하여 사용되어 왔다. 물론 당시로서는 도시계획을 알고 있는 행정이나 소위 계획가가 부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새롭게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획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고, 그러한 일제의 계획환경(planning environs)이 지금도 변화지 않은 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면 지나친 평가라고 이야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 가장 큰 특징인 도시계획과 건축과의 만남의 부재, 주민참여의 부재 등은 대표적인 한국적 도시계획의 한 단면이다. 또한 도시계획이 계획보고서 작성으로 끝나버리고 위원회 중심의 사업, 인허가 중심의 운영방식 등은 지방행정의 사례이다. 이러한 계획시스템으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꿈꾸는 광주시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에 매우 버겁다고 하겠다. 지방이라는 한계 속에서 지방만의 독특한 계획행정을 수립하고, 공간을 전문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성찰 없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환경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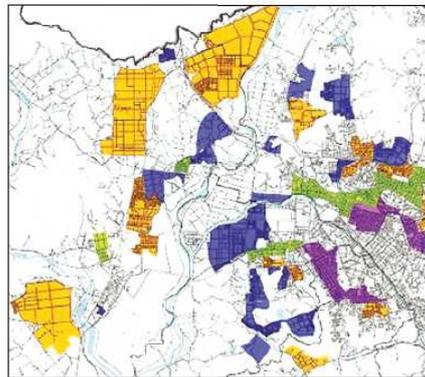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은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주도하여 왔다. 60년대부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주도하였고 80년대 이후에는 택지개발사업이 도시개발을 주도하는 사업이었다. 우리나라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감보율이 30%가 넘는 것이 기본이었고 심지어 50%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정착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조인 일본에서는 감보율이 10%를 넘지 않았다. 일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개선사업으로서 추진되었지만, 도로부지를 확보하고 공공시설을 과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어쩌하였든 지자체가 주관하여 추진하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이 주도하는 공적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80년대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일본 후쿠오카시(福岡市)의 시사이드 모모찌지구(seaside 모찌)의 조경도 광주시의 상무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었다. 시사이드 모모찌지구는 구주(九州)의 중심업무의 기능과 신도심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주요시설로는 국제호텔, 돛구장, 국제 비즈니스빌딩, 후쿠오카 타워, 주택단지 등

광주시의 경우도 제1순환도로의 내부와 주변지에는 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었으며, 80년대 이후에는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계획과 유리된 채 개발된 단지를 위한 도시개발이었지 도시 전체의 프레임과는 크게 관련이 없이 반 독자적으로 추진되었다.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택지개발은 단위 규모가 너무 크고, 개발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자체가 독립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도시조직과는 다른 양상을 갖게 되었다. 또한 급증되어 대규모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전국 어디에서나 비슷한 아파트단지와 소규모상가주택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도시경관을 단순화하고 획일화하는 결과를 연출하게 되었다. 아마도 이러한 대규모 택지개발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상무지구가 아닌가 한다.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도시개발은 도로망이나 건물 외형 등을 구분하는 수준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모로갔으나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도로와 건물의 부조화, 특색 없는 아파트단지, 무질서한 간판 및 건물의 파사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어느 지자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계획시스템의 문제라 하겠다.



1960년대 이후부터 개발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현황 (자료: 광주광역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 도시기본계획을 계획보고서(plan report)에서 정책지침서(policy guideline paper)로

최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계획시스템(planning system)을 구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과거와는 단절된 새로운 계획시스템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계획의 대표이며 분야별 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master plan)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고 분야별 사업들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커다란 정책방향만 제시하고, 실제 세부의 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주체들과의 논의와 자료의 검토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많은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하고 하나의 축제로 승화시켜 그야말로 도시의 기본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아직 요원해 보이는 이러한 움직임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부터 바뀌어 가는 것이다.

####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단초

광주시가 지방자치시대와 도시시대에 걸맞은 독특한 공간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계기로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있다.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건국 이래 중앙정부가 하나의 도시에 대해 단일 프로젝트를 이렇게 크고 장기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을까 싶은 정도로 역사에 길이 남을 사업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단위 시설을 개발하거나 건축한 경우는 있어도 기존 도시에 대



광주의 상무 신시가지 조성 조경도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가 분양을 목적으로 제작한 홍보물)

해 국책사업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하겠다. 도시계획의 입장에서 본다면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광주라는 도시에 문화를 입히는 새로운 도시를 창조하는 사업인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양적팽창의 도시개발에서, 이제는 특색 있고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도시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토대가 되어야 한다. 광주문화중심도시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만을 짓는 사업이어서도 곤란하고, 문화예술만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서도 곤란하다. 여기에 문화공간을 창조하는 토대가 되어야 하고 시민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시도로 새로운 계획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도시별로 특색 있는 도시만들기사업을 추진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시범사례가 광주시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도시의 규모도 적당하고, 민주도시·인권도시라는 밑바탕도 튼튼하고,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같은 도시전체를 변화시키려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 편에서는 새로운 도시만들기에 대한 외국의 선진사례를 살펴보면 서 우리의 경우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후쿠오카타워 높이 234미터, 후쿠오카시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졌으며, 8,000장의 거울로 둘러싸여 있어 미러세일(Mirror Sail)이라 불리기도 한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kwimg@hanmail.net

## 한일지도판매(주)

한일지도판매(주) ☎ (062)524-3059, (062)529-1409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477-2 운암주유소 뒤편

관리지역 세분화 신판지도 출시!!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은 정부에서 시행한 시·군·전지역·관리지역 세분화 수록

특보 2010년 최신 광주광역시 지번도책 판매 중!

이번에 새로 나온 신판 지도책은 전품목 30% 세일

★최신 광주, 장성, 담양, 곡성, 화순, 나주, 함평 지번도책★

목포·무안·영암·신안군 4개 지역을 1권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되어나와 판매중입니다.

상담문의 ☎ (062)524-3059, 529-1409

# 건축과 조경의 틈새를 찾아라 레인가든(Rain Garden)

조동범 교수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 1. 조경과 건축의 근연관계 (2010년 2월호에 기재)
- 2. 조경과 경관건축에 있어서의 랜드스케이프 (2010년 3월호에 기재)
- 3. 건축공간의 식재설계-제도와 공간채우기를 넘어 (2010년 4월호에 기재)

이번 호에서는 건축과 조경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주제에서 잠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인 공간을 주제로 하고자 한다. 지난해 필자는 자투리땅 정도의 규모에 해당되는 공공용지 활용(주 권역)에 관한 적이 있다. 주거단지 내 교차로에 인접하고 있는 이 부지는 단지계획 시, 공공시설 용지(파출소)였는데 지구대 설치 축소방침에 따라 용도전환 신청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었다가 잠재적으로 소공원 형식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게 된 땅이었다. 조성 이전까지 이 부지는 주차나 광고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현재 빗물정원(레인가든)으로 변모된 이 부지에는 지난 가을에 심은 꽃장롱나사초류, 세덤류 등이 봄을 맞이하여 파릇파릇 생기를 띠어가고 있다. 유난히 비가 잦은 올해, 가끔 비에 잠기도 하는 이 화단은, 대체 무엇일까 하고 주변을 지나 는 주민들은 궁금해 하기도 한다.

주 : 광주시와 푸른광주21의 협력사업인 2009년 '내집앞 마을기르기사업' 지원을 받아 (사)광주·전남 나무심는 건축인모임에서 진행한 사업으로서 필자의 연구실에서 설계와 공사 및 관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 레인가든의 의미

Rain Garden(이하 빗물정원)은 말 그대로 빗물을 활용하거나 잡아두는 정원이다. 보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경적 방법으로 만든 인공적 웅덩이 형태의 생물적 체류역(Bio Retention)이라고 한다. 그 역할은 초기 강우와 포장면의 유출수를 모아 토양 속으로 천천히 흡수시키고 여과시키는 것이며, 강우 유출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우배수관과 하천으로 유입하는 물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도시에 내리는 비가 아스팔트 차도나 보도 등으로부터 침수정을 통해 곧바로 도시하천으로 흘러들게 되면 하천오염이 증가하고 홍수 발생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투수성 포장재를 쓰거나 녹지면적을 늘리는 것인데, 빗물정원은 단순한 녹지공간 이상으로 비오름을 확충하고 도시기온을 낮추어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며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효과를 가진다. 빗물정원은 도시의 우수관리를 위한 최선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스폰지와도 같은 부식토층으로 이루어져 물을 흡수하고 서서히 토양에 침투시킨다는 점에서 실은 산림환경을 모방하여 재현한 것이다.

### 도시와 건축공간에의 적용성

일반적으로 빗물정원은 주거단지 등에서 친환경적인 단지조성기법으로서 알려져 있지만 독립적인 부지에 조성되는 경우보다 건축물 인접공간에서 더 필요하고 실현하기도 쉽다. 빗물정원이 그 건축과 조경의 사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건축공간에서 부족하기 쉬운 녹지와 투수성 환경을 그 공간 내에 장치(equipment)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건축물에서 는 옥상의 배수시설을 통해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드레인 파이프를 통해 지면 또는 기존의 배수관로에 직결하여 신속하게 배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왔기 때문에 건축물 인접공간은 독립된 외부공간보다 건물 자를 포함하여 불투수층이 상대적으로 높고 빗물이 지면 유출수(surface runoff)로서 대부분 배수관을 통해 빠져나가게 된다.

최근 친환경 건축물에서는 에너지 절감이나 태양열, 지열 등과 함께 빗물활용 기술도 개발되고 있지만 주거단지와 같은 넓은 면적이 아닌 경우 빗물 활용에서

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편이다. 빗물을 모아 활용한다는 것은 건축물 단위에서 보면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일까? 실은 그런 점 때문에야말로 빗물활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건축물이나 개별필지 단위 보다는 단지나 도시 단위에서 모아질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며 보다 큰 공공적 목표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 건축물이나 단지에서만 아니라 소규모 건축부지나 조경공간 확보가 어려운 협소한 건축공간일수록 적용가능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빗물을 활용하여 풍부한 수공간을 가지게 된 Atzacapot zalco 테크노파크(멕시코시티)의 외부공간과 지하빗물 저장시설(하).



주거단지에서의 드레인파이프에 직결된 빗물통과 빗물저류조로 이어지는 수로가 체계적으로 계획된 독일 베를린의 주거단지.

구체적으로 기존의 도시·건축공간에서 빗물정원을 통해 도시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지안의 조경에 의한 조경면적이나 건축후퇴선의 공간, 공개공지 등은 건축공간에서 형식적인 녹지나 개방된 포장면적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 눈여겨 볼만한 적용대상이다. 특히 건축후퇴선의 공간은 오히려 보다 적도 열악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옥외 영업공간, 상품 적차공간으로 편법 이용되기도 한다. 무의미한 포장공간이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도시 내 도로변의 상업,업무용 건축물 대부분은 그와 유사한 상황이다. 아울러 미관가로나 시가지경관지구 등에서 요구되는 가로의 통일성이나 도로로부터 조망되는 가로경관면들기에서도 빗물정원은 효과적이다.

### 작동하는 건축·조경 공간으로서 빗물정원

빗물정원이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은 보도기차로와 가로녹지이다. 시나 구에서 조성하는 보도의 녹지대의 대부분은 도로나 보도면과의 사이에 턱을 두고 배수를 위해 오히려 주변보다 녹지를 더 높여두어 강우 시 흙이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투수성 지면으로서의 의미도 약하지만 정리되지 못한 포장면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가로녹지는 도시 전체적 기반을 이루기 때문에 일부분의 개조만으로는 그치지 않고 도시하천의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개선에도 연관된다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빗물정원이 보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인 사업에서 머물지 않고 도시 전체적으로, 특히 시가지화지역에서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필수적이다. 가로나 협소한 부지에서 도시 전체적으로 빗물정원을 실현하고 있는 도시중 하나인 미국의 포틀랜드시의 경우에는 1997년부터 빗물 공익기

금을 조성하여 우수관리를 위한 보조비용으로 충당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많은 가로녹지(그린스트리트라고 부르고 있다)와 공공건축물 인접녹지를 빗물정원으로 개조중이다.



건물옥상으로부터 배수된 빗물을 활용하여 1층부 벽면과 인접된 피로터 하부공간을 빗물정원으로 조성한 사례. 경관적 효과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가로 녹지대로서 설치된 빗물정원. 일반적인 녹지에 비해 보도 높이보다 낮게 조성되어 도로면의 물이 유입된다(미국 포틀랜드 그린스트리트시스템)



빗물활용이 환경이나 경관적인 것에 목적을 둔 것만은 아니다. 방재를 위한 마을마을기로 시작된 일본 동경도 스미다구 히가시무코지마의 빗물활용시설인 로지촌(路地畵)과 덴스이손(天水尊)은 좁은 골목 동네의 재해발생시 물을 쓸 수 있는 수원으로서 사용된다. 평소에는 화단의 물주기나 아이들의 물놀이장소로 활용되기도 하고 스트리트퍼니춰로서의 효과도 충분하다.

경관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을 것이다. 빗물정원은 건축에 있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조경공간>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빗물정원이 환경적인 장치의 의미만 있고 경관성에서 빈약하다고 할 수 없다. 빗물정원에 사용되는 식물은 습한 환경에서부터 건조한 환경에 이르기까지 적응성이 높은 종류들로 선정하고 초본류가 위주가 되기 때문에 계절적 변화가 풍부하고 상투적인 녹지형식을 벗어난 새로운 경관창출 효과를 기대해도 좋다. 혹자는 모기가 번식하는 웅덩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빗물정원은 일정 수위 이상은 기존의 우배수 시설이나 또 다른 빗물정원으로 오버플로우(overflow)되고 빗물이 일시적으로 머물다 토양 속으로 흡수되는 구조를 가지며, 또 모기류가 싫어하는 식물 종류도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Interview

# 미래를 여는 千年全州

전주 어디서나 조망할 수 있는 모악산(793.5m)은 남서방향의 산맥이 비바람을 막고 도시를 감싸주어 사계절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자연의 경계를 정책에 반영하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전주시청 건설교통국 송기항국장을 탐방하여 건축·도시 정책과 건축문화 경쟁력에 대하여 인터뷰하였다. 전주시의 권역별 주요사업으로 노송천복원, 영화거리 특성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용머리 능선이기 및 인후동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등이 있다.



송기항 국장  
전주시청 건설교통국

먼저 전주시 건설교통국의 업무내용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미래로 이어가기위한 구상으로 도시, 주택, 도로, 교통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별로 민관 협의회, 도시재생 추진단을 구성하고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체계적인 도시미관을 목표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상품의 전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개발계획과 구도심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은 2009년 말 기준 약 280여만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고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최하고 있는 '2010 한국 관광의 별' 관광매력을 관광시설부문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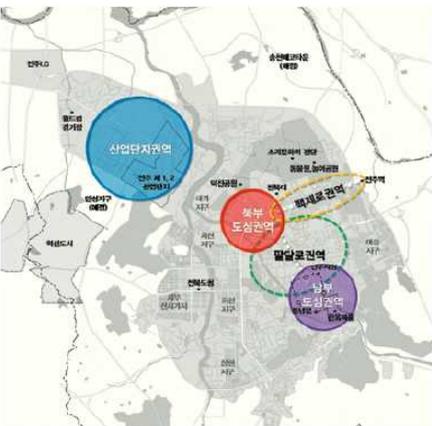
다른 고장의 한옥마을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도심 속 한옥밀집 거주지역으로써 박제된 공간이 아닌 주민이 직접 생활하는 정주형 한옥마을이고 경기전, 향교, 오목대, 이목대, 전동성당, 천주교성지 등 수많은 역사 유물과 유적이 함께 하고 있어, 한옥생활을 통해 다양한 전통문화인 한옥 생활 체험, 한지 뜨기 체험, 판소리 체험, 공예품 만들기 체험, 음식체험 등 일상에 서 몸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는 공간적 특징과 장점



전주 한옥마을 전경

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적과 함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체류하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체험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2010년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활성화



전주시 도시재생 권역



전주시 도시재생 워크숍

화할 것입니다. '09년 10대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연구 및 자문활동을 하였으며 2010년 도시재생추진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추진위원의 유연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4+1권역 단위의 운영체제로 조정하였습니다. 운영방안으로 사업별 민·관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참가 프로그램으로 도시닥터제도인, 거버넌스(Governance)체계 구성, 자문회의를 통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닥터제를 운영하고, 대상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용머리 능선이기 사업, 영화거리 특성화사업 등이 있으며, 2010년 신규 실행사업에 대한 도시닥터 추가지정, 세부사업별 민·관 협의회에 도시닥터제를 도입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닥터 및 추진위원의 세미나, 간담회 활동을 적극지원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행정의 집행력을 결합하여 지방도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도시재생TF팀, 도시재생추진단,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인적 네트워크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입니다. 대상사업으로 마을포럼(마을만들기 포럼)은 실무전문가로 구성되어 민간주도의 도시재생 사업활성화의 견인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주시 경관계획도



전주시 인후동 해피하우스 개소

끝으로, 공직 건축인으로 오랫동안 일하셨습니다. 행정에서 바라는 건축인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생명은 문화와 디자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지침이나 강제성 없이 계획설계부터 자유롭게 참여하여 분야별 스튜디오와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아이템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건축인들의 참여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 이성명 전북건축사협회장  
정리 : 김기범 건축사 기자 (vivo@kira.or.kr)

시대의 흐름에 따라 건축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기본법이나 경관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건축정책에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전주시의 도시경관과 관련된 건축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기본법이나 경관법의 제정목적이 큰 틀에서 보면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경관법 제정 이후 전주시 경관조례를 제정(2008. 7. 9)시행하고 있습니다. 2년여에 걸쳐 전문가들의 참여와 용역 등을 거쳐 5개의 경관축과 5개의 조망축 및 4개의 경관권역 등을 골격으로 하는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건축정책을 경관권역별 기본경관계획을 기준삼아 계획단계에서부터 경관축과 조망축을 중심으로 하여 전주시의 도시경관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건축물과 색채계획 등 경관 요소별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주변환경과 색채, 외관 등의 조화를 이루며 품격있는 경관이 조성 되도록 하고 아울러 전주시건축사회 및 전문가들과도 전주시 도시경관과 관련 지속적인 회의와 포럼 등을 통하여 건축문화가 도시를 아름답게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건축설계 · 건축감리 · 인테리어설계

## 마당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이창진  
전화 062) 226-7111 팩스 062) 226-7113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9-37번지 3F

### 조선대 장동국 교수 특별강연회

- 주제 : 미국의 건축대학과 현대건축물
- 일시 : 2010년 5월 27일 목요일 저녁7시
- 장소 : 광주건축사협회 5층 세미나실
- 대상 : 광주·전남·전북지역교수, 건축사, 학생, 공무원, 일반시민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장동국 교수가 지난 2009년 1년간 미국 미시건대학에 교환교수로 체류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특별강연회를 갖는다. 강연회의 주된 내용은 체류기간 동안 방문하였던 미국의 8개 건축대학의 특성과 시설을 소개하고, 16박17일 동안 미북서부 대륙을 횡단하며 답사하였던 도시와 대표적인 현대건축물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번 강연회는 동료 및 선배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장동국 교수가 자청하였으며, 이를 감사하게 받아드린 광주건축사회가 적극 후원하고 나섬으로서 마련되었다.

소중한 정보를 가까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 고귀한 뜻에 따라 아무쪼록 많은 건축인들과 시민들이 동참하여 광주의 건축문화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곽승국 전남 기자 (ksk830710@hanmail.net)

### 조선대학교 5월의 학술세미나

- ▶ 5월 12일(수) : 오후 4시 ~ 5시 30분
  - 주 제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체계와 실천과제
  - 발표자 : 이신혁 건축학 박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사무국장
- ▶ 5월 28일(금) : 오전 10시 ~ 12시
  - 주 제 : 건축 CEO 특강 - 세계를 디자인하라
  - 발표자 : 정영권 한국/미국 건축사(주)책임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이슬기 학생기자 (homin1004@nate.com)

### 전남대 건축학부 木曜講座 운영

전남대 건축학부에서는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또는 각 분야 건축인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목요일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강좌는 학문적 통섭을 위하여 건축학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되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기를 초빙하여 강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목요일 저녁에 매학기 7회 정도 진행된다.

2010년 1학기 목요일강좌 일정은 다음과 같다. (문의 : 062-530-1630)

- ▶ 3월 25일 목요일 저녁 19시
  - 21세기형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 김항집 (광주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 4월 15일 목요일 저녁 19시
  - 문화도시 프로젝트와 아시아문화전당
  - 김양현 (전남대 철학과 교수)
- ▶ 5월 13일 목요일 저녁 19시
  - 도자예술의 공간조형
  - 조재호 (도예가, 전남도립대학 교수)
- ▶ 6월 3일 목요일 저녁 19시
  - 빛과 공간의 연출
  - 문정민 (조선대 디자인학부 교수)

### 동신대 남기봉 교수 대한건축학회 교육상

동신대학교 남기봉 교수가 지난 4월 23일, 서울산업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2010년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에서 교육상을 수상했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건축문화발전에 탁월한 공적으로 기여한 회원 및 단체에게 그동안의 공헌을 치하하고, 진지한 연구·창작·실천을 권장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총회에서 학회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교육상은 건축교육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남기봉 교수는 독일 베를린 국립공과대학교 건축공학 과에서 석/박사 학위과정을 마친 후 1991년 귀국하여 지난 20년 동안 동신대학교에 재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교육 환경개선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수많은 건축인을 양성하고, 배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서재형 건축사 기자 (archeseo@lycos.co.kr)

### 광주대 건축학과 초청강연회 열려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2010년 1학기 첫 번째 초청강연회가 4월 27일 오후3시에 호심기념도서관 5층 세미나실에서 '도시인 8년의 건축에세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강연회에 초빙된 '김용권 건축사'는 2002년 설계사무소 창설 이후 8년 동안 사람과 도시, 문화와 도시가 어울려지는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였던 점과 디자인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 강연하였으며, 미래의 건축인에게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한편 2010년 1학기 두 번째 초청강연회는 5월 11일 오후3시에 열릴 예정이며, 주제는 '건축에서 구조의 역할'이고, 초빙강사는 박무웅(주, 한국건설공법 대표이사) 건축구조기술사이다.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이훈희 학생기자 (hh3759@naver.com)

### 제6회 우수졸업논문전에서 이 지역 수상자 5명

매년 실시되고 있는 대한건축학회 우수졸업논문전에서 우수상 21명(석사 11/학사 10)과 장려상 78명(석사 41/학사 37)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99명의 수상자 중 이 지역에서는 장환(호남대), 송국곤(전남대), 김대군(원광대) 등이 석사부분 장려상을, 강종구(전남대), 정효원(동신대) 등이 학사부분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아쉽게도 우수상 수상자는 배출하지 못했다.

### 조선대학교 제9회 장미축제



조선대학교에서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제9회 장미축제'가 개최된다. (사진출처: 조선대학교 홍보부)

### 조선대에서 한국건축학교육협의회 세미나 열려



지난 5월 8일(토) 조선대학교 제1공학관 17층 대형 세미나실에서 한국건축학교육협의회 주최로 호남권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3월과 4월의 토론회에 이어 '국내 건축학교육의 현실과 다양한 학제의 사례발표'를 통해 건축학교육을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이 자리에서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천득업 지회장은 축사를 통해 "건축학 학생들을 위한 학제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며 "건축학과 특성상 5년제가 타당한지 냉철하게 논의가 되어야하며 이와 같은 세미나를 통한 방안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조발표에서 '국제건축학제 다변화의 현실과 국내 건축학제'란 주제로 명지대 이준석 교수와 '건축설계 시장 규모에 따른 건축사 수요와 건축학교육'이란 주제로 선문대 송석기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사례발표에서는 군산대 송석기 교수와 전남대 이효원 교수, 호남대 박익수 교수, 대구 경일대 현택수 교수 등이 군산대학교와 전남대학교, 경일대학교의 건축학 학제사례발표 등을 통해 각 지역 대학의 현안과 고민을 토론했으며 건축교육학의 다양화 필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확인했다.

**주식회사 가도 A&C**

GADO ARCHITECTURE & ENGINEERS ASSOCIATES

설계 / 감리  
건축 공사업  
주최 건설업

합리적 기획에서 실시까지 최상의 맞춤 프로그램  
독보적 기술의 건축기술력과 노하우  
21세기형 주택건설 지향

대표이사 [관공사] **위태준**

전화 : 062-372-9949  
팩스 : 062-571-9949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94-18번지 6,7층

곽승국 전남 기자 (ksk830710@hanmail.net)

학교소개는 우수건축인 양성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하였으며, 먼저 4년제 또는 5년제 대학교의 건축전공을 광주·전남·전북 등 소재지별로 구분한 후 학교명의 한글 순서로 게재한다. 기사내용은 해당 학과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편집자 주)

실무형 인재 · 글로벌 리더 · 열린대학

###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 실무에 밝은 창의적인 건축인 양성은 동신대학이 책임지겠습니다.

호남권의 대표적인 사학으로 성장해 온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는 1987년 동신공과대학의 설립과 함께 개설된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건학이념인 근면·검소·창의 정신에 입각하여 건축학에 대한 이론과 응용기술을 교수·연구함으로써 학문 및 기술 분야의 발전을 통해 건축문화 창달을 선도할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 실무에 기반한 창의적인 건축교육과정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는 1999년부터 건축설계와 건축공학·리모델링전공으로 나뉘어 전공분야별 깊이와 내실을 더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였으며, 1996년부터 건축설계 스튜디오등을 구축하는 등 경쟁력 있는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 특성화 기반을 갖추고 있다.

건축설계전공은 국제건축학교육인증기준에 부합하는 5년제 교육을 실시하여 이론과 실무 기술을 통합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 건축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건축공간을 창조하고, 예술성과 미적 조화를 이룬 인간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학, 미학 그리고 공학이론 및 첨단과 학기술을 활용하는 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건축공학·리모델링전공(4년제)은 국가 및 지역의 건축기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기술인의 양성과 국제적 협약에 따른 국가상호간 인정기술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건축이론과 실무 조화형 교육, 건축분야의 지도자적 인격의 도야를 위한 체험실습, 합리적 사고능력의 함양을 위한 과학적 교육, 그리고 국제적 건설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건축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하고 있다.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도 창의적인 건축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강좌와 워크숍, 국제교류프로그램, 장학금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해외대학 연수와 학점교류를 통해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과 외국문화의 이해의 폭을 증대하여 건축 문화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창의적인 인재로 지원 육성시켜 학생 자신의 브랜드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교육 및 현장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학부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활동(팀 프로젝트, 스터디그룹, (창업/학습)동아리)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자체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과 전공지식 활용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 소재한 기업체에서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에 발맞춘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학부의 소모임으로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가상으로 실현시켜보는 '노하우', 건축설계에 대한 토론하는 '루트오와 파르데논', 건축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사진으로 표현하는 '아키펀처', 건축에 관련된 학습을 하는 '프리즘', '허수아비', 'APP' 등이 있다. 또한, 문화건축학부에 재학 중인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수님과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조성 및 선후배간

유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WORKSHO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정규교육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학생들은 건축 관련 전국 규모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대형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 공무원, 국영기업체 등 건축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장학금으로는 우수 신입생 장학금, 재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학습의욕 강화와 성적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장학금, 우수한 인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신리더 장학금 및 기업과 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다양한 장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춘 교육중심학부

우리 학부는 교육중심대학인 동신대학교의 위상에 걸맞게 학생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첨단 기자재와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건축면적 488㎡, 연면적 2,168㎡인 건축설계 스튜디오등을 구축하여 건축설계 특성화 기반을 갖추었으며, 또한 친환경건축기반 설계와 공학실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260여평 규모의 친환경건축 복합실습동 (ECO HOUSE 21)을 구축하였다. 친환경주택 실험동에서는 가변적 주택, 자원재활용, 태양시스템을 활용하는 패시브시스템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구조시스템을 동시에 비교 평가할 수 있다.

전공과정 학생 1인당 전용컴퓨터 테이블과 설계 작업대가 제공되고, 24시간 개방 학습이 가능한 건축설계 스튜디오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조형실습이 가능한 CAD실, CAD/CAM으로 3D 모형을 제작하는 자동화 모형제작실 및 세계 각국의 건축잡지나 건축관련 전문도서를 학생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공동자료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최상의 교육환경은 260여건에 달하는 건축공모전 입상실적을 통해 입증되었다.

또한 건축환경에 관련된 음향실습실과 황토방, 건축음향분석기·소음 및 진동측정기·실내환경분석기·음향발생장치 외 24종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환경실습실, 500kN용량의 서보스크류잭·1,000kN용량의 만능시험기(U.T.M)·데이터로거(TDS602)·로드셀·오일잭·슈미트머머 외 25종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구조실습실 등은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밝은 미래를 이끄는 창의적인 건축인의 양성

20여년의 짧은 시간동안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2005년) 선정 등 다수의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학부를 통해 배출한 문들은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학계, 관계, 국영기업체 등에서도 중추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20주년 총동문회(2007)

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신대학의 졸업생들은 지역대학의 한계를 일찍이 넘어 서서 전국적으로 여러 건축분야에서 실무에 밝고 성실한 인재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건축계의 동량들로 성장하였다.

매년 배출되는 건축사와 기술사 그리고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자로 성장하여 귀국하는 졸업생 등을 통해 그동안의 교육성과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으며, 그들로 인하여 동신대학이 이제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입학할 때보다 졸업할 때 그리고 졸업 후에 나날이 발전해 가는 졸업생들의 활동을 보면서 근면·검소·창의 정신에 입각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대학의 밝은 미래를 보게 된다.

동신대학교 공과대학 문화건축학부  
학부장 : 손승광(sskshon@dsu.ac.kr)  
(학부사무실 : 061-330-3120)



소모임



건축구조실습



건축설계 스튜디오동



친환경건축 복합실습동



해외 문화탐방(2008)



초청강연(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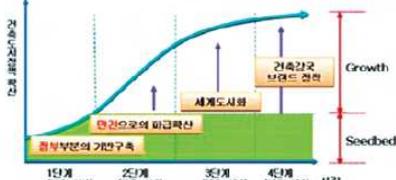
3D 모형제작기

## 정부, 국가차원 '제1차 건축 정책기본계획' 수립 확정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 건축·도시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과 함께, '보급자리주택 품격 향상방안', '신한옥 플랜' 등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토의 품격을 높여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5년씩 나눠 오는 2029년까지 4단계로 진행된다.

5년 단위의 계획은 경관과 디자인, 기술, 산업, 문화 등 건축 및 도시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통합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국가건축정책의 장기비전과 단계별 계획

1단계 기간에는 공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건축·도시 분야의 초석을 다지게 되며, 2단계 (2015~2019년)에서 민간으로 파급·확산을 거쳐게 된다. 3단계와 4단계에 접어들면 국내 건축·도시 분야의 세계진출 등 건축문화 강국으로서 국가브랜드를 정착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보급자리주택의 품격향상과 신한옥플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급자리 주택의 품격향상의 방안으로, 공공주택의 디자인 향상, 단절된 공동체 문화 회복, 에너지 녹색 주거환경 조성을 주요태마로 하고 있다. 공공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서는 長수명 무량복합구조를 적용하여 가변성이 원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건물외형의 배치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심의를 정비하고 발코니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30%이상 절감을 위하여 차호면적의 축소, 단열강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옥플랜은,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토경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범부처차원의 종합계획으로, '한옥의 보급 확산'을 농어촌지역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옥 신속 시, 농어촌주택개발자금(5000만원을 5년 거치 15년 상환(연리 3%) 조건으로 내년부터 지원)을 우선지원하며, 농어촌 한옥 표준 설계도서를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택지 개발 시, 단독주택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입지유형별로 한옥마을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

비전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목표	<b>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b> 1 국토·도시 디자인 향상 2 900 국가기관시설 디자인 제고 3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정착	<b>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b> 1 녹색 건축·도시 구현 2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	<b>창조적 건축문화 실현</b> 1 고유의 건축문화유산의 보전 활용 2 국제 건축작품을 활용한 건축문화 대표 프로젝트 추진
전략	<b>1 국토·도시 환경 개선</b> 1) 공공건축 디자인 보전 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 2) 공공건축 디자인 보전 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	<b>2 건축·도시 친환경 고도화</b> 1) 건축·도시 친환경을 위한 기반 마련 2) 녹색 건축·도시 분야 선진기반 조성 3) 건축·도시 친환경을 위한 기반 조성	<b>3 건축·도시 문화의 확산</b> 1)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실현 2) 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3) 건축·도시 문화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실천과제			

께, 도서관·유치원·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한옥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http://www.pcap.go.kr>)의 주요정책을 참조하면 된다.

## 한국건축가협회상 및 특별상 신청 안내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2010년도 협회상과 특별상 수상후보작 지원을 받고 있다.

1979년에 제정된 한국건축가협회상(Best 7은 매 해당 연도에 완성된 건축가의 건축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적 성취도가 높고, 건축이 목적하는 바의 기능이 완성된 건축 작품 중에서 7작품을 선정하여 건축가, 건축주, 시공자에게 상을 수여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전년도(2009년) 6월 1일 ~ 당 해년도(2010년) 5월 31일 사이에 건축이 목적하는 바의 기능이 완성된 건축 작품으로 하고 있다.

특별상 중 '김중성건축상'은 매 해당 연도 이전 5년간에 완성된 작품을 대상으로, 디자인에 적용한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창의적이고 건축적 완성도가 뛰어난 건축물을 선정하고 그 건축가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시상하고 있다.

그리고 '임덕문건축상'은 매 해당 연도 이전 3년간에 완성된 국내작품으로 창의적이고 선명하게 주제가 표출되었거나 건축적인 성취가 두드러진 건축물을 선정하고 그 건축가에 대하여 시상하고 있다.

또한 '아천건축상'은 한국적 설계이념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국적 조화미를 나타내려는 의지가 보이는 작품을 선정하고 그 건축가에 대하여 시상하고 있다.

협회상과 특별상 수상후보작 원서 교부 및 접수는 5월 31일(월)부터 6월 3일(목)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http://convention.kia.or.kr>를 참조하면 된다.

## 건축사가 등장하는 MBC '개인의 취향'



MBC에서 3월 31일부터 방영되고 있는 수목 드라마 '개인의 취향'에서 남자 주인공의 직업이 건축사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 건축

사라는 신분이 건축 등장하였지만 중후하고 딱딱한 이미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드라마가 '평범한 남자가 지겨운 색다른 취향의 로맨티 코미디를 추구'하고 있는 점에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파격적이다. 건축사로 등장한 전진호(이만호 역)가 너무 젊고 발랄하다는 점도 그렇고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현상설계 공모 과정이 소개되는 점도 그렇다. 또한 드라마는 시청률을 의식하여 전개되고 있지만 그 밑바탕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축설계사무소와 설계 프로젝트를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드라마의 배경이 되고 있는 '다임예술원(Design & Arts Arcadia of Myungseung)'은 명승건축그룹(대표 이순조)에서 설계하여 2009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기공식을 가졌고, 2012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명승건축은 국내 건축사사무소로는 처음으로 드라마 제작비를 메인으로 협찬하고, 건축설계를 위한 각종 자료 지원과 자문을 통해 전문적 건축사의 생활이 드라마 속에서 현실성 있게 보여 지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비판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건축적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고노하는 전문가로서의 모습과 남다르지 않는 인간적인 면모가 함께 어우러져 안방극장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건축사의 위상이 모든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박승국 전담 기자 (ksk830710@hanmail.net)

## 대한건축학회 건축텍스트북 시리즈 발간

대한건축학회에서는 1995년의 건축학전서 발간에 이어 두 번째 총체적 발간사업으로 건축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건축텍스트북시리즈(12개 분야, 16권)' 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9권이 최근에 발간되었다. 이번 '건축텍스트북시리즈'는 대학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공내용을 담았으며 분야별 전공교수와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집필하였다. 기문당을 통해 최근 발간된 9권의 도서명은 '강구조의 이해', '제로카본,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의 이해', '건축공간론', '주택디자인', '주거론', '건축공사관리', '건축시공기술', '건축재료', '건축설비' 등이다.

법/령/소/식

국토해양부 최근 공포 법령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4월5일부터 최근까지 20여개의 법령을, 15여개의 훈령, 예규 고시를 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등의 이유로 새롭게 공포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 최근에 공포한 법령과 고시 등의 법령명을 우리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의 최근공포법령을 참조하면 된다.

● 최근공포법령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법」 (2010. 4. 20 시행)
- 「주택법시행령」 (2010. 4.19 시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0. 4.14 시행)
- 「주차장법」 (2010. 3.22 시행)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0. 4.15 공포, 2010.10.16시행)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0. 4.15 시행)
- 「건축물의 파산·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4.15 시행)

1. 개정내용 설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일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와 연결된 토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장 등 대규모 단일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규모 제한 완화(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1) 현재는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일률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공장과 같은 단일 용도의 시설물이라도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먼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비용으로 개발행위를 적기에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단일 용도의 시설물은 규모가 크다 하

더라도 그 입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결개발제한제도의 개선(영 제55조제5항제3호, 영 제55조제5항제5호 신설)제중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뿐만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연결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 등의 건축물이 이미 집단적으로 밀집된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연결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을 중앙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으로까지 확대하여 도심 내 1인·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켜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중추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유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부합하는 녹지 및 도시공원 등 공익적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여가활동 증가로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체육시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을 활용한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공원·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능한 시설에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함(법 제12조제1호가목).

신영은 건축사기자 (archsye@naver.com)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역담당에 조선대 건축학부 조용준 교수 선임



지난 4월 중 서울대학교 대청강의실에서 열린 '한국도시설계학회 2010 춘계학술대회'에서 지역담당에 조선대 건축학부 조용준 교수가 선임됐다.

신임 회장에는 양윤재 서울대 교수(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선출됐으며, 부회장에는 제해성 아주대 교수, 도시담당에는 류중석 중앙대 교수, 건축담당은 이용의 동우건축 대표, 재정담당은 박주신 천일기술단 사장이 선임됐다.

전북 최상철 건축사, '내가 살던 집 그곳에서 만난 사랑' 도서 출판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최상철 건축사가 '내가 살던 집 그곳에서 만난 사랑' 이란 제목으로 도서를 출판했다.

최상철 건축사는 전북·무주 출생으로 전북대학교 건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이후 건축설계과정에서 현대 건축의 병리현상에 주목하고 산 따라 물 따라 다니며 체득한 풍수지리 등과 같은 '자연사상'을 건축에 대입해가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살터인 '집'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건강한 집·건강한 생활', '건축상담', '최상철의 건축이야기' 등의 칼럼과 저작물을 펴냈다.

이번에 출판한 '내가 살던 집 그곳에서 만난 사랑'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혹은 그냥 흘러보냈던 옛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세대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한다.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바라본 옛 건축물을 통해 좀 더 정확하게 우리 건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 건축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게 해준다.

최 건축사의 설계작품으로는 '예일당', '주남한', '아중재', '삼락헌'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내 마음을 두드린 우리건축', '풍수지리설에 근거한 전통취락의 형성배경에 관한 연구'가 있다.

정부, 도시형 생활주택·규제 확 푼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15일,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주 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 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 했다.

구분	현행	개정
도시형 생활 주택	건립세대수 15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
	1개동 연면적 660㎡ 이하	660㎡초대(연립주택) 허용
	근린생활시설, 1채당 6㎡ 이하	폐지
	사업업인 대상: 2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으로 완화
도시형 생활 주택	토지소유자와 주택업체의 공동차주 유지기간 20년	6개월~1년 이내로 완화
	민간업체 자금지원 3000억원	1조원으로 확대
주주택	공공부문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없음	나지방공사가 매입한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
		50㎡ 미만 소형 국민임대주택 중 일부 원룸형으로 공급
	오피스텔내 욕실(1개, 5㎡ 이하)	폐지
주주택	업무용 70% 이상	폐지
	주택기금 지원 없음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지원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서 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범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신정철 전남회장 김강수 전북회장 이성범  
편집인 박홍근  
전담기자 박승국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형, 정태호,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김삼현, 김기범, 정영범, 정관성, 박종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2521-0025



표 / 지 / 설 / 명

1910년대의 광주군 옛 모습을 보여 전통과 역사의 발자취를 살피고 우리의 문화 유산을 바로 알고 보존하며 계승해 나가자는 의미로 광주의 옛 지도를 이미지화 했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원부터  
▶ 후원방식: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 김정일 | (주)에스엔지니어링 50만원
- 김남준 | 남강원토세리믹 50만원
- 강필서 |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30만원
- 위태준 | (주)가도A&C 30만원
- 문강욱 | (주)승 건축사사무소 30만원
- 윤춘주 | 법무법인 서석 20만원
- 한일지도판매(주) 20만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필/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 의: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예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광주건축사회 '회원 및 조합원 워크숍'

- 신안중도 옐도라도 리조트에서 6월 4일, 5일 열려

광주건축사회는 264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건축사 윤리의식 강화 및 건축사사무소 경쟁력 강화 전략을 위해, 전라남도 신안 중도의 옐도라도 리조트에서 6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회원 및 조합원 워크숍'을 진행한다.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前서울대학교 부총장 송병락 교수의 초청강연회와 심상봉 광주건축사회 부회장의 '건축사사무소 그룹화 세 부추진전략', 이창을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의 '2010건축사협회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 등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란 주제로 분임토의가 진행된다.

### 5월에 각종 전국대회 연달아 열려

- 전국여성건축사대회 5월 13, 14일
- 전국건축사축구대회 5월 14, 15일

2010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와 제6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가 5월에 연달아 열린다.

전국여성건축사대회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CITY OF GREEN 남산과 한강사'에서 만난다. 라는 주제로 서울지역에서 개최된다.

지난 1994년 결성된 여성건축사회는 전국 8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5월경 대회를 개최, 매회 각 지방도시를 순회하는 일정이 진행되고 각종 건축물 현장 답사 및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 여성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6회 전국건축사축구대회도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대구광역시건축사회의 주관으로 대구 강변축구장에서 개최된다.

대한건축사협회 최대의 스포츠 대회로 자리매김한 전국건축사축구대회는 지난 2005년 제1회 전국건축사대회를 시작으로 6회를 맞았으며 작년 제5회 대회는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주관, 경남 남해에서 개최, 대구건축사회 축구동호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 세계측지계 전환 전면시행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2.10] (2009.6.9제정)을 시행한다.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 폐지). 측량기준, 지적기준 및 수로조사 측량기준점을 하나로 하고 관리체계 일원화 및 측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토 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이 세계측지계(GRS80 타원체)로 전면시행(2010. 1. 1)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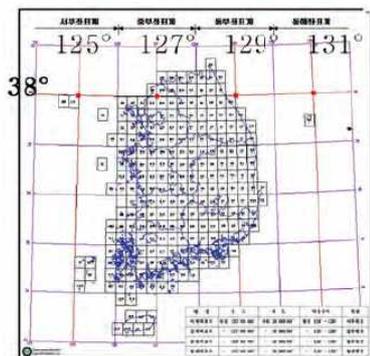
측지계란? 지구상에서 지리학적 위치를 정의하는 방법으로서 경·위도 및 평면직각좌표 등과 같이 임의지점을 수치를 표현하는 체계이며, 우리나라는 약 100년간 일본 동경 측량원점을 기준으로하는 동경측지계(Bessel 타원체)에 의하여 국토위치를 측정해왔다.

현재 지적측량은 1910년대에 작성된 도면을 사용하여 도상경계와 지상의 현실경계를 비교하여 토발측량시스템을 개발 경계복원측량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있으며, 현행 토지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등 구분되어 등록되어져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적도(동경측지계, Bessel 타원체)와 수치지형도(세계측지계, GRS80 타원체)를 동일 좌표계로 전환하여 중첩 활용할 수 있는 변환 소프트웨어가 무상으로 제공되고있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표 1〉 좌표변환 소프트웨어 비교

제작기관	소프트웨어명	기능			지원포맷	비고
		왜곡량 산정	DXF 변환	SHP 변환		
국토지리정보원	GDKtrans	●	●	X	DXF, NGI	무상제공, 1/1,000, 1/5,000이하
대한측량협회	KSMtrans Ver1.2	●	●	●	DXF, NGI	무상제공, 인증완료
공간정보기술	GeoDT 2.2	●	●	●	DWG, DXF, NGI, SHP, DGN, SGD, JPEG, GIF PNG, TIFF	유상제공, 인증완료



〈우리나라 TM좌표원점〉  
 · 동경측지계(Bessel타원체)를 세계측지계(GRS80타원체)로 변환하면 해당지점의 좌표가 경도 약+10초, 위도 약-8초(남동방향 약 365m) 정도 수치상으로만 변화가 있으며, 변환된 지점의 실제 위치, 면적 및 높이는 변하지 않음.  
 · 변환 예) 동경측지계 경.위도 세계측지계 경.위도  
 위도: 북위 37°00'00" ▶ 37°00'10" (약 +10"차이)  
 경도: 동경 127°00'00" ▶ 126°59'52" (약 -8"차이)

김기범 건축사 기자 (vivo@kira.or.kr)

### 전북건축사회, 건축학과 학생초청 연찬회



전북건축사회는 지난 4월 29일(목)에 전북대학교 5년제 건축학과 재학생을 초청하여 연찬회를 가졌다.

건축학과 5학년 재학생 17명이 참석 가운데 태완섭 사무국장의 사회로 '건축사제도, 직업윤리, 협회의 기능과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 시간을 갖고,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교육 + 2년 이상 건축설계수련의 교육과정

을 이수한자에게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부여하는 UJA 권고기준 건축사 자격제도 및 2005년도에 설립되어 활동 중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http://www.kaab.or.kr)'으로부터 건축학교육인증을 획득하여 운영중인 2개 대학(2010년 현재)의 실태 등에 대한 안내도 자세히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이상엽 회장과 이정호 부회장을 비롯한 김주식 전임회장(지도교수)과 한민 건축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과 수도권 건축사사무소의 운영 실태 및 장단점 설명 등 건축학과 졸업생으로서의 현실적인 진로 지도와 상호 토론 및 질의응답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김기범 건축사 기자(vivo@kira.or.kr)

### 건축문화사랑 감사문

'건축문화사랑' 발전에 일조해 주신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광주 건축계 동정

- \*입회**
  - 최준호 건축사 (향민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치평동)
- \*변경(소재지 변경)**
  - 송임근 건축사 (대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동림동 1262번지 동아빌딩 5층)
  - 오창수 건축사 (한세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치평동 1234-1번지)
- \*변경(사무소명, 소재지 변경)**
  - 송주덕 건축사 (동도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풍암동 1034-2 레이크빌 205호) → (케이디엔지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동 12-5)
- \*부고**
  - 양양현 건축사 (이조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5월 3일(월)
  - 김성곤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예문) / 빙부상 - 5월 5일(수)

#### 전남 건축계 동정

- \*결혼**
  - 임금수 건축사 (새한 건축사사무소) / 자녀 - 4월 24일(토)
  - 김양욱 과장 (광주건축사회) / - 5월 9일(일)
- \*전입 (소재지 변경)**
  - 정용재 건축사 (태진 건축사사무소, 전북 익산시 / 전남 해남군 해남읍)
- \*부고**
  - 신재판 건축사 (주)연희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4월 28일(수)
- \*결혼**
  - 심우석 건축사 (우성 건축사사무소) / 장남 - 5월 1일(토)
  - 장순미 사원 (전남건축사회) / - 5월 23일(일) 오후 12시 30분 광주 경북공

#### 전북 건축계 동정

- \*폐업**
  - 이병관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바오 - 4월 9일)
- \*변경(소재지 변경)**
  - 이장희 건축사 (수도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45-1)
  - 정희진 건축사 (지디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710-3)
  - 김윤관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모현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18-5)
  - 김재욱 건축사 (유진 건축사사무소 / 군산시 조촌동 865-6)
- \*변경(상호)**
  - 최상철 건축사 (삼호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 김용운 건축사 (고강 건축사사무소 → 금강 건축사사무소)
  - 김정수 건축사 (건영 건축사사무소 → 건영 건축사사무소(주)(개안→ 법안)
- \*부고**
  - 한성수 건축사 ((주)세종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4월 11일(일)
  - 권환주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산건축) / 모친상 - 4월 20일(화)
- \*결혼**
  - 이장희 건축사 (수도 건축사사무소) 장남 - 4월 24일(토)
  - 이순아 사원 (전북건축사회) / - 5월 23일(일) 오후 1시 전주 월드컵 웨딩 센터 1층 해피홀

#### 알림

전라남도건축사회가 이전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구분	이전 전	이전 후
사무소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83-23 추선회관 3층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074 전남개발B/D 7층
전화	062)365-9944, 364-7567	061)285-7563-4
F A X	062)368-6151	061)285-7567

• 수필

# 성산포와 영산포

곽성숙  
광주시 북구 동림동

우리 엄마는 올해 78세이신 할머니십니다. 영산포가 고향이시지요. 그래서 그리신지 엄마는 성산포를 늘 영산포라고 합니다. 엄마의 성산포는 영산포이고, 영산포가 성산포인게지요.

영산포에서 태어나 시집(媳)은 영산댁을 우리는 영산포 아가씨 또는 영산떡이라고 부릅니다. 이생진선생님의 그 유명한 '그리운 바다 성산포' 시집(詩集)을 들고 시를 읽고 있으면 엄마는 "아이, 막내야 영산포랑께" 하십니다. 그것을 아주 오랜 세월 지치지 않고 엄마는 꼭 말씀하십니다.

"성산포는 제주도의 바다이고, 영산포는 영산강이리니까요!" 해도 그때마다 "아, 맞아" 하시며 웃으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때 뿐 다시 얼마쯤 시간이 흐르고 또 다시 제가 "그리운 바다 성산포" 하고

제법 멋지게 시를 읽으려고 꿈을 잡으면 "어허, 또 근다. 영산포랑께" 하십니다.

"궁께~ 엄마 나는 어찌 그럴까?" 하고 이제 자친 막내는 웃고, 전혀 안자친 엄마는 위너(승리)의 모습으로 흡족하게 웃으시며 파를 다듬으십니다.

엄마와 막내 딸인 저는 늘 그러합니다. 엄마는 서점에 가실 때면 저에게 묻지요.

"막내야, 누가 시집 한 권 사준다고 하면 누굴 말해야 하나?"

"엄마, 웬 영감이 책 사준다고 엄말 꼬이면 그리운 바다 성산포 쓰신 이생진시인 아시요? 하세요.

그럼 엄마 상당히 괜찮은 노인으로 보이테니까요!"

알았다잉~ 하시며 인위으시려고 중얼중얼 되새김질 하며 평생교육원에 가십니다.

참 못 쓰시는 글씨체로 교과교과 수업 내용을 듣고 적어오셔서 일러주시는 엄마는 강의 시간 중에도 시를 적어서 나눠주시는 교수님 시간을 참 좋아하십니다. 아마도 제가 엄마의 영산강 같은 마음을 닮았나 봅니다.

어느 날은, 서정주시인의 '신부에게'가 적힌 교육 자료를 들고 오셔서

"아이, 막내야 한번 읽어봐라야. 교수님이 읽어주시는데 어쩌나 좋은지 몰라야."

78세 영산포 아가씨, 영산떡은, 소녀보다 더 수줍은 5월의 새신부가 되어 불이 붉어지십니다.

또 어느 날은, 작은 언니에게 동백아가씨를 부르라 해놓고 이생진 선생님의 '동백 꽃 피거든 흥도 오라'를 읽어드리면 시는 어느 곁에 멀리가고, 엄마는 눈을 감고 동백아가씨만 따라 부르시며 흠뻑 취하십니다.

(노래에 취한 것인지, 시에 취한 것인지 잘 분간 못할 눈감음의 황홀지경 상태로) 제가 다 읽고 나서 실컷 모른 척 "고을~" 하면

눈을 반짝 뜨시며 "아 참, 좋다야! 아주 좋다.~ 하시며 또 탄오시오 션다.

"흥도가 좋지야. 흥도는 꼭 기보거리" 하시며 아직도 안가본 저에게 매번 당부하시는 거지요. 이게 엄마와 막내딸의 이생진선생님의 시를 두고 하는 일삼입니다.

시에서처럼 시달리며 살아남아있는 것은 모두 아름답기에 한 세월 외롭고 고된 길을 걸어온 엄마의 일생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 그리운 바다 성산포 \_ 이생진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  
그 빈자리가 차갑다  
아무리 동백꽃이 불을 피어도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그 빈자리가 차갑다

나는 때여 놓을 수 없는 고독과 함께  
배에서 내리자마자  
방파제에 앉아 술을 마셨다  
해상 한 토막에 소주 두 잔  
이 죽일 놈의 고독은 취하지 않고  
나만 등대 밑에서 코를 골았다

술에 취한 섬  
물을 배고 잔다  
파도가 흔들어도  
그대로 잔다

저 섬에서 한달만 살자  
저 섬에서 한달만  
뜬 눈으로 살자  
저 섬에서 한달만  
그리움이 없어질 때까지

성산포에서는  
바다를 그릇에 담을 수 없지만  
들어진 구멍마다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들어진 그 사람의 허구에도  
천연스럽게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은 슬픔을 만들고  
바다는 슬픔을 삼킨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이 슬픔을 노래하고  
바다가 그 슬픔을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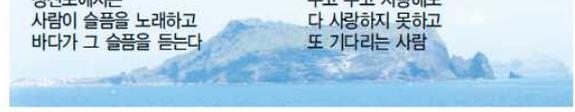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죽는 일을 못 보겠다  
은 종일 바다를 바라보면  
그 자세만이 아랫목에 놓고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더 태어나는 일을 못 보겠다  
있는 것으로 죽한 존재  
모두 바다만을 보고 있는 고립

바다는  
마를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 나절을 정신없이 놀았다  
아이들이 손을 놓고 돌아간 뒤  
바다는 멍하니 마을을 보고 있었다  
마을엔 빨래가 마르고  
빈집 개는 하품이 잦았다  
밀감 나무에는 게으른 윤기가 흐르고  
저기 여인과 함께 나타난 버스에는  
덜컹덜컹 세월이 흘렀다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죽어서 실컷 먹으라고  
보리밭에 물었다  
살아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  
죽어서 취하라고  
섬쪽대기에 물었다  
살아서 그리웠던 사람  
죽어서 찾아 가라고  
잠신 두 짝 놓아 주었다

삼백육십일 일 두고 두고 보아도  
성산포 하나도 보지 못하는 눈  
육십 평생  
두고 두고 사랑해도  
다 사랑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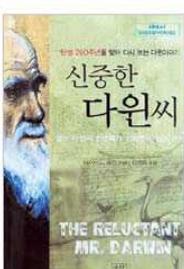


내가 읽은 책  
Book

## '신중한 다윈씨'

데이비드 퀴먼 지음, 이한음 옮김, 승산 펴냄

신영은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사람 대표



이 책을 접하기 전 '다윈을 떠올릴 땐 '진화론자', '급진론자'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우리가 생물시간에, 과학시간에 다윈을 접할 땐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 뿐이었으니까...

급진론자인 다윈을 왜 '신중한 다윈'이라고 했을까 라는 호기심이 책을 집어 들게 한 계기였다. 책은 신중한 다윈씨 만큼이나 지루하고 신중했다.

다윈은 귀족이었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매우 가정적이어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 귀족들의 전유물이던 사교행사에도 다니지 않았다. 넉넉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났고 결혼 후에는 서로의 지참금이 합하여져 한결 여유있는 생활을 하였다. 다윈의 주 수입원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서의 부와 그가 집필한 원고의 수입이었다.

다윈은 청년시절 '비글호'를 타고 전세계를 돌며 각종 표본을 모으고 일지, 착상 등을 기록하였다. 무려 5년간!! (22세에 떠나 27세에 돌아옴 - 1836년 10월) 그리고 나서 20년간 5년동안의 비글호 여행 동안 조사했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와 연구를 한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1859년에 출간되었다. 그가 비글호 여행을 하고 돌아온지 23년간의 일이다. 1838년에 이미 진화개념에 대해 본인 스스로의 정리가 있었으나 출간을 하지 않다가 1859년에야 결심하게 된 것이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아이들을 키우고 집 안팎에서의 소일거리를 찾고 건강염려증에 걸린 사람처럼 지내었다. 그는 혐미경으로 따개비를 해부했고 비둘기를 키웠다. 그 시간 동안 여러 글을 발표했지만 '변형'을 다룬 글은 없었다.

그는 20여년간이나 자신의 명확한 생각을 걸음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단지 아이들을 키우고 따개비를 연구했던 것이다. 그것은 아

마도 자신이 코페르니쿠스 적이라 할 수 있는 혁명적인 이론을 발표했을 때의 반응을 예상했기 때문이었으리라. 갈릴레이 갈릴레오도 자신의 연구를 통해 명백히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버린 이상 자신의 이념을 바꿀 수 없었던듯 다윈 역시도 창조론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진화론을 이미 깨달은 바에야 그 진리를 어길 수도 자신과 가족들의 위함을 무턱대고 감수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리라.

20여년간을 망설여온 다윈 앞에 월리스라는 평민출신의 자연학자가 나타난다. 그는 다윈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일지 못했고(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계와 관심의 방법으로 보르네오섬 등을 돌아다니며 연구한 자신의 생각을 우연히 알게 된 다윈에게 편지를 통해 알게 된다. 마치 전화를 발명한 벨과 또 다른 과학자외도 같이 다윈과 월리스는 진화론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다윈은 마침내 자신의 이론을 발표하게 된다. 자칫하면 월리스에게 선권을 뺏길 수 있으므로...

아마도 월리스가 없었으면 다윈은 끝내 자신의 이론을 발표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도한 진실이라는 게 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아무리 덮고 가리려 해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진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진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역사의 진실이란 언젠간 밝혀지고 현세에서 인정받지 못할 지라도 반드시 진실은 통하리라는!..

건축사 Gallery



휴가(休暇)  
무엇이 우리살의 공간을 이렇게 좁아지고 깊어지게 하였을까  
우리는이렇게 좋아진공간을 넓히고 높이기위하여 때로는 사람과 때로는 컴앞에서...  
잠시 일상에서의 탈출로 또다른 에너지를...  
그림: 김용주 건축사

Photo



파르테논 신전의 야경  
르 꼬르뷔제는 1911년 동방여행을 하면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를 낚시와 상관없이 4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방문했다고 한다. 후일 그는 "아크로폴리스는 예술과 건축의 표준"이라고 경탄했다. 그리고 100년 후 르 꼬르뷔제가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았던 자리(현재 레스토랑)에서 에스프레소 한잔과 함께 감상했다.  
(2010.04.12일 촬영)  
이순이 건축사 / 미가온건축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획득  
기술혁신 중소기업 (INNO-BIZ) 인증  
벤처기업 등록

www.bs-base.co.kr

# 탄탄하고 경제적인 기초공사 - 반석기초이앤씨(주)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 팽이기초공법 (6연식형 / 현장타설형)

팽이기초공법  
6연식



동신고 체육관

팽이기초공법  
현장타설형



잠신 중학교



군산인력개발원



전남대 학군단



105 포병대대



서정동 주민센터

## 마이크로파일 공법



장성 문화예술회관



연천초

## 그라우팅 공법



반석기초이앤씨(주) 대표이사 문형록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87-1 아이비타워 108호 TEL. 031)577-1673 FAX. 031) 577-1674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무등의 비로와  
1등으로  
세계기록!



알고 계셨나요?

##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은 우리고장 광주삼성전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광주전자주식회사는 1989년 광주 하남산업단지에 설립된 광주지역 독립법인입니다. 2조원 규모의 호남제일기업으로써 고용인력증대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있으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활동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환경친화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광주전자는 인간의 생명과 자연을 보호 한다는 신념아래 전자녹색경영을 통한 자연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하남산업단지 내 삼성광주전자



저렴한 유지비+인테리어까지 생각한 1:1 맞춤바람은  
오직 **내고장 광주기업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 뿐입니다.



### 우리지역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 전문점

(유)삼성무동특판 062)365-6900	(유)에이원공조시스템 062)681-8504	순천 동아이엔에스(주) 061)722-0850	전남지역 나주 (주)하이옥스 061)336-0071~2
(주)센도리 062)268-5811	(주)오성에어텍 062)971-7742	순천 티에이엔스(주) 061)721-4798	전주 디지털공조 063)277-7999
광주지역 (주)한국엠이씨 062)521-2341~2	(주)삼성공조시스템 062)952-0048	전남지역 여수 삼성영일시스템(주) 061)653-2025	전주 (유)삼성에스에이비공조 063)226-0419
(주)에이원비 062)603-4787	그린공조시스템 062)385-7300	광양 (주)디에스시스템 061)795-6631	전북지역 전주 (유)일신공영 063)212-9131
(유)하우랜드공조시스템 062)511-0006		목포 (주)한빛시스템 061)247-9500	전주 (유)정연엔지니어링 063)244-7777
			군산 (유)삼성특판공조 063)451-7800
			익산 (유)한국설비 063)832-7152
			익산 두일공조시스템(주) 063)841-5800
			익산 삼성동성에어컨(주) 063)855-8700